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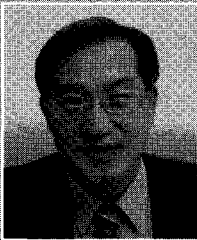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

Universal Design and Barrier free

올해 초 새해맞이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무렵인 1월 말, 언론보도를 통하여 두 가지 기다리던 내용이 흘러나왔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과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8종의 KS 규격 제정”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2005년도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협요인을 새로운 수요창출로 국민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겠다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을 마련하고 그 의지를 밝혔다. 뒤를 이어 1월 21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포장 및 용기의 손쉬운 식별, 사용방법, 개봉성능”, “소비생활제품의 조작편의성 향상, 돌출기호 표시 및 알림신호음”, “시각표시물의 연령별 인식 정도”, “고령자용 의류의 착용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설계지침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8종의 KS 규격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하게 고령자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도 발 벗고 나서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수많은 배리어(Barrier, 장벽)를 제거(Free)하자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다지 활발한 분야는 아니지만 현



박태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구관

포장 및 용기분야 배리어프리 활발 전망

재 이러한 사고가 빠른 속도로 우리 주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배리어프리 분야로는 주거를 포함한 건축 공간 설계분야였으나, 향후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와 생활제품, 서비스 및 마케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자리 잡게되면 이들 분야에 대한 배리어프리가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산업이 활성화되면 생활제품분야가 가장 큰 분야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임은 틀림없고, 따라서 포장과 용기분야 역시 활발한 배리어프리 분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동시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지침의 표준화는 필연적으로 배리어프리와 함께 자리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장과 용기분야의 배리어프리를 위하여 제정한 설계지침 표준화 현황으로는 앞서 설명한바 대로 기술표준원에서 제정된 8종의 KS 규격 중 KS P 1505(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포장 및 용기)와 KS P 1506(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포장 및 용기-개봉성 시험방법)이 있다.

특히 KS P 1505 규격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포장 및 용기의 설계지침을 규정하고 있어, 포장과 용기의 설계, 생산 및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계,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필히 이해해야 할 기본규격으

로 여기서 소개하기로 하며, 중요내용을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KS P 1505 규격은 다음의 네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첫째, 이 규격은 악력과 시력이 약한 고령자,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소비생활제품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한 내용물의 용이한 식별과 손쉬운 사용방법을 위해 배려해야할 사항의 규정을 적용범위로 하였다.

둘째, 실제 포장과 용기를 표시할 때의 배려 내용으로, 개봉 시 개구부와 개봉부의 손쉬운 식별과, 포장과 용기 내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손쉬운 식별을 위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려사항으로는 ① 색채대비에 따른 위치식별, ② 기호, 그림 또는 문자를 사용한 위치와 내용식별, ③ 점자표시, 노치, 돌출기호 등 촉각에 의한 위치와 내용식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진 포장과 용기의 내용식별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우유나 주스 등 음료수용 용기일 경우, 용기의 상단에 우유의 경우는 1개의 노치(notch)를, 주스의 경우는 2개의 노치로 만들어 구분하고, 맥주와 같은 캔 형태로 된 용기일 경우는 점자 및 엠보싱 처리를 하여 구분하며, 설탕, 소금 등 형태가 유사한 조미료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KS 규격따라 포장산업 변화 기대

상이한 용기뚜껑을 설계하여 구분토록 하며, 샴푸와 린스 같은 용기의 경우는 샴푸에는 측면 촉각기호를 표시하고, 린스는 촉각기호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분토록 한다.

셋째, 용이한 개봉을 위한 배려사항으로는 플라스틱 파우치의 경우, 빼기모양의 노치를 개구부에 만들어 손쉽게 손으로 자를 수 있도록 하거나, 종이상자의 경우는 연속적인 노치 부 또는 끝이 달린 부분을 잡아당김으로써 손쉽게 열 수 있도록 하거나, 젤리 등 부드러운 푸딩용 내용물을 포장하여 감싼 용기는 크기가 큰 돌출부분을 당김으로써 손쉽게 열 수 있도록 하거나, 통조림의 뚜껑은 풀탭(pull tap) 구조로 하고, 나사형 용기의 경우는 세로의 긴 홈을 뚜껑에 만들어 젖은 손으로도 미끄러지지 않고 손쉽게 열 수 있도록 하거나, 포장필름 및 열수축 필름은 개봉용 끈을 당김으로써 손쉽게 열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악력이 약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용기의 형태는 용기를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용기의 형태는 무게와 크기에 어울려야 하며, 우들투들하거나 나선형의 끈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확실하게 움켜잡을 수 있는 용기면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KS P 1505 규격은 이처럼 훌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쉽게도 국내에서 이

러한 설계지침을 적용한 사례로는 캔맥주, 샴푸용기 등 극소수로 아직은 우리의 노력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04년 417만명으로 전 국민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수 역시 최근 5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1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자와 장애인수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큰 숙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지관련 산업계에서 이들 소외계층을 또 하나의 새로운 소비 주체 세력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련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배려를 위한 제품과 설계지침의 표준화, 그리고 배리어프리의 활성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하기 힘든 크나큰 과제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막 일기 시작하는 정부의 날개짓에 동참해 주는 업계가 있다면 우리가 늘 구호로만 외치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선진복지국가 건설"도 한낱 공염불로 전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업계들의 동참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